“불교문화 체험하며 친구 됐어요”

한·일 청소년 40명 갑사서 템플스테이
2박3일간 예불·참선·탁본뜨기 함께 해

“타… 타노시데스까?(재밌어?)”

“응, 정말 신기해.(하이, 메즈라시이)”

1월 8일 공주시 갑사 향적당은 갈빛 수련복을 입은 학생들로 이야기꽃을 피웠다. 비록 단어를 잇는 수준이었지만 마음을 나눌 수 있기에 즐겁다는 학생들. 한국전통사찰체험을 위해 갑사를 찾은 한 · 일 양국 40명의 학생들은 새벽예불과 참선, 다도, 발우공양, 탁본 뜨기 등을 함께 체험하며, 따뜻한 우정을 나눴다.

“일본과 한국의 사찰예절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일본에서는 절할 때 손을 뒤집지도 않고 삼배를 올리지도 않거든요.” (토모미 쯔즈미, 후쿠호카대 1년)

“저는 참선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여기서는 손을 무릎위에 올려놓던데 일본에서는 이렇게 손가락을 모아 원을 만들며 참선하거든요.” (에가시라 쿠미코, 국립사가다 에이가쿠대 4년)

일본학생들은 한국불교문화체험을 통해 발견한 차이점들을 늘어놓기에 바빴다.

이어 진행된 산사체험 ‘갑사여행’. 삼삼오오 짝은 지은 아이들은 대웅전과 대적전, 적묵당, 팔상전 등을 둘러보며 갑사의 창건설화와 그 역사적 의미를 하나 둘 배워갔다. 한 임진왜란 당시 승병을 조직해 호국에 앞장선 서산 · 사명 · 영규대사의 영정을 모신 표충원을 찾아 무고하게 희생된 넋을 위로하고 세계평화를 염원하는 시간도 가졌다.

“전 불교학생회 활동을 해서 그런지 사찰체험이 색다르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일본 친구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생각에 예불을 드릴 때 온 몸에 힘이 들어가던 데요.(웃음)” (이재원, 한국교원대 3년)

“의사소통이 원활하지는 않았지만, 사찰체험을 하는 2박 3일 동안 일본친구들과 일본문화에 대해 이해하는 마음이 생긴 것 같아요.” 김수경(동국대 3년)

훈민정음 창제 이후 처음 발행된 불경언해서 월인석보(月印釋譜)를 탁본해보고 있는 한 · 일 청소년들.

가깝고도 먼 나라 한국과 일본. ‘2002 한 · 일 월드컵’의 성공적인 공동 개최정신을 계승하고 양국간 청소년 교류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파라미타 한 · 일 공동 미래 프로젝트 ‘타임머신’은, 이렇듯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으로 마무리 됐다.

“자, 마타 아또.(다시 만나자)”

이튿날 서로의 손을 맞잡은 학생들은 연락처를 주고 받으며, 아쉬운 작별을 고했다.

이번 행사에 참가한 일본학생들은 정법사문법화종본산 묘법사 청소년회 소속 학생들로, 사찰문화체험에 앞서 서산마애삼존불, 보원사지, 수덕사 등 백제문화권을 탐방했다.

공주=김은경 기자 ilpck@buddhapia.com

화성 용주사 인근 택지개발

환경단체 허가 취소 요구

경기도 화성시 용주사 인근에 예정된 태안3지구 개발과 관련, 지역환경단체가 문화재보호 등을 이유로 허가취소를 요구했다.

오산 · 화성환경운동연합은 1월 5일 시와 주택공사 등에 의견서를 내고 “국보 제120호 범종 등 문화재의 보고인 용주사와 천연기념물 제264호 용주사 회양나무가 환경변화로 위험할 수 있다”며 형상변경허가 철회를 요구했다.

주택공사 경기본부는 개발지역인 화성시 태안읍 안녕리 일원에 오는 2008년 말까지 3천910가구의 주택을 짓기로 하고, 지난해 4월 개발계획승인을 받아 11월 토지보상에 착수했다.

김원우 기자

부안 주민투표 실시 촉구

종교계 인사 기자회견

수경 스님(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등 종교인들이 부안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주민투표 실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1월 7일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종교인들은 성명서를 통해 “총선 전 주민투표 실시안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수용해 더 이상 불신과 낭비가 없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정부가 부안주민들과의 합리적 해결책을 거부해 부안주민들만의 독자적인 주민투표가 실시된다면 참여정부의 권위는 바닥에 떨어질 것”이라며 “우리는 부안주민들이 제안한 주민투표관리위원회 구성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종교인들은 “정부가 핵 발전 정책에 대한 근본적 검토 없이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구태의연한 핵 중심의 에너지정책을 강행하려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지금이라도 핵 발전 위주의 전력 정책을 중단하고 사회적 공론을 형성키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는 수경 스님을 비롯, 도법 스님(인드라망생명공동체 상임대표), 오영숙 수녀(천주교 장상연합회), 이선종 교무(원불교 천지보은회), 이동훈 신부(천주교환경연대), 김영락 목사(기독교환경연대) 등이 참석했다.

남동우 기자

지진 피해 이란에 국내외서 자비 물결

지진 피해를 입은 이란에 국내외 자비의 손길이 잇따르고 있다.

천태종 나누며하나되기운동본부(총재 운덕)는 1월 5일 이란 피해난민을 돕기 위한 성금 1천만원을 대한적십자사에 기탁했다. 이날 전달된 성금은 지난해 말 이란 지진피해 상황을 접수하고 사찰별로 긴급 모금에 나서 모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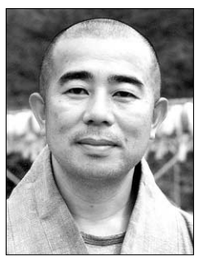
세계 최대의 불교 자원봉사단체인 자제공덕회도 지진 피해를 입은 이란 난민 돕기에 나섰다. 대만 자제공덕회는 지난 해 12월 29일 이란의 케르만주 밤시에 감찰단을 파견해 구조물자의 공급 및 피해 상황을 파악했다. 자제공덕회의 지진 구조시찰단은 12월 31일 현장에 도착, 의료용품 12상자, 비상약통 100개 등을 지급했으며, 담요 1만 개, 침낭 3백개, 죽 캔 500개등도 나눠 주었다.

한편 지난해 12월 30일부터 현지에 파견된 JTS 조사단 한김지영 씨는 “구호물품 분배가 체계적이지 않아 노약자들에게는 잘 전달되지 않지만 긴급 구호품은 충분한 상태”라며 “현재 가장 필요한 것은 가옥 재건축”이라고 1월 5일 밝혔다.

박봉영 · 남동우 기자, 대만=이상미 통신원

인 터 뷰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



“본사 주지 자리가 수행가풍 진작, 도제양성, 합리적 종무행정을 만들어내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큰 짐을 지게 돼 걱정부터 앞섭니다.”

1월 9일 조계종 제4교구 월정사 산중총회에서 새 주지로 선출된 정념 스님(사진)은 부담이 크다는 말로 소감을 대신했다. 그러나 월정사와 불교발전을 위한 구상은 빈틈이 없었다.

정념 스님이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수행가풍 선양, 스님 노후복지 보장, 도제양성 강화, 대중 참여 종무행정 구현 등 크게 네 가지.

“월정사에 면면히 이어져오고 있는 한암 스님과 탄허 스님의 수행가풍을 더 진작하는 것이 우선 과제가 될 것입니다.” 종무행정을 보는 사중이라도 수행과 일상이 함께 이뤄져야만 공동체 의식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정념 스님은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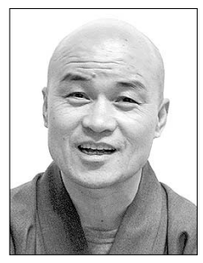
“수행가풍 탄탄하게”
노후 보장·도제 양성 강화

노후복지 보장은 수행과 원력을 유지하는 근본이라는 것이 정념 스님의 소신이다. 도제양성과 관련해서는 월정사에 선원과 강원을 세우는 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단기 출가학교를 개설해 변화하는 시대의 가치관과 신행관을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정념 스님은 “교구종회에 총무, 재무, 포교, 사회 등 분과위원회를 구성한 후, 대중의 견해를 반영해 중요 사안을 심의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념 스님은 56년 생으로 월정사에서 만화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총무원 호법국장과 승가학원 감사, 제11대, 12대 종회의원을 역임하고 상원사 주지와 13대 종회의원으로 활동해 왔다. **한명우 기자**

송광사 주지 영조 스님



“주지소임이란 것이 중노릇 잘 하면서 공부하는 스님들 외호하고 문도와 대중 화합에 충실하는 것 아닙니까? 전임 현봉 스님이 사중의 질서를 체계적으로 잘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그 뒤를 이어 승보종찰 총림위상에 어긋남 없도록 하겠습니다”

1월 11일부터 조계총림 송광사 주지직을 수행하는 영조 스님(사진)은 “동안거 결제기간이어서 공부중인 대중들을 시끄럽게 해서는 안된다”며 “주지 진산식이나 번잡스런 행사는 갖지 않겠다”고 말했다.

20년 가까이 무등산 증심사에 주석하며 광주불교를 선도해온 영조 스님은 “주 5일근무제가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사찰을 찾는 이들이 늘고 있어 이들이 자연스럽게 불교와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관심갖겠다”고 밝혔다.

“재가수행처 만들 터”
생활 속 불교 실천 이끌 계획

현대인의 문제를 가까이서 지켜본 영조 스님은 대안으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정진할 수 있는 ‘재가수행처’를 제시했다. 도심에서 가까운 산사에 재가자를 위한 수행공간을 마련해 낮에는 사회생활을 하고 저녁에 2~3시간 함께 정진한 뒤, 나머지 시간은 자유롭게 공부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생활 속에 불교를 실천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영조 스님은 또한 “지역불교가 살아야 한국불교가 살고 나아가 정토세계가 구현되지 않겠냐”고 반문하고 “최근 3~4년 전부터 광주를 중심으로 불교계가 왕성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방장스님의 뜻을 받들어 대중들과 함께 정진하며 지역불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준엽 기자

‘못다 핀 어린영혼이여 고이 잠드소서’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산하 청년위원회(위원장 김규범)는 1월 8일 서울 동작대교 위에서 부모에 의해 강물에 던져져 사망한 어린 남매 위령제를 개최했다. **사진=고영배 기자**

밤은 청정 맑은 햇살로 빚은
금강경 메주 불사

금강경 독송회에서는 참서리가 내려앉는 음력 10월이면 매년 메주를 만들어 부처님 전에 공양 올리고, 결식아동을 돕기 위해 메주 불사를 합니다.

금강경 복 메주는 공부하는 수행자들이 금강경 7독과 정진을 하면서 손으로 직접 만들기 때문에 정진의 기운과 정성이 듬뿍 들어있습니다.

복 메주는 100% 우리콩을 가마솥에 삶을 때 솔잎과 장작을 이용하며, 따스한 햇볕과 바람, 그리고 황토로 만든 홈집에서 40일간 자연발효시킨 전통 무공해 메주입니다.

해마다 드셔보신 분들마다 옛 뚝배기 맛 그대로 배어있어 아주 좋다고 하십니다.

■ 메주 1말 6kg
■ 참기름과 된장(죽염), 고추장, 조림간장, 국간장, 청국장

메주 주문 연락처 H·P : 019-820-5587

포항	054)261-2231	서울	02)742-0172
부산	051)514-3566	대구	053)425-3063
울산	052)245-0337	대전	042)862-8638
창원	055)299-5419	수원	031)253-2677
군산	063)452-7852	광주	062)681-3268
강릉	033)644-9009		

복식품

생활불교의 새 지평을 여는

전법사 대학 대개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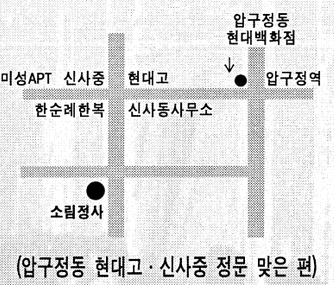
이시대를 대표할 불자님을 양성하는 최고의 수행과정을 지향합니다

자아완성과 전법도생 불교중흥의 원력을 성취하기위하여 신심있는 불자님을 위한 전법사 대학 수행과정을 특별 개강하오니 입문 동참하여 대공덕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 개강일시 : 2004년 1월 19일(월) 오후 1시
❀ 매주강좌 : 매주 월요일 오후 1시~오후 5시

❀ 강좌내용 : 불교교리, 참선, 의식, 포교학, 상담학, 건강기공, 수지침, 동양철학, 건강 태극권
❀ 기 간 : • 기본과정 : 3개월 • 중급과정 : 3개월 • 고급과정 : 3개월 • 연구과정 : 3개월
❀ 대 상 : 1. 각급 불교대학 졸업자 2. 불교 교양대학 졸업자
3. 불교 대학원 졸업자 4. 신행단체 임원 불자
5. 뛰어난 신행으로 전법사의 자질이 인정되는 자 ◎ 제1회 여전법사 과정임
❀ 교 수 진 :
• 불교교리 (불교계 최고권위의 교수님단) • 동양철학 (정현우 박사) • 수 지 침 (김두엽 선생)
• 법화경 (석지형 스님)

❀ 건강태극권 : 소림사 공법을 연마한 기공 대가의 건강태극권 특별지도
❀ 축원동참금 : 매월 20만원
❀ 특 전 : 1. 한국불교를 이끌어 갈 전법사로서 크나큰 공덕과 업적을 성취하도록 수준 높은 책임교육 실시
2. 수행과 전법에 모범적인 불자는 포상 및 적극 후원
3. 수료 후 포교원 혹은 포교당 개설시 적극 후원
4. 장학금 지급 (전법사대학 수행 불자 전원에게 매월 소정의 장학금 지급)
◎ “佛”자 100만자 수행의 원력으로 순금분 · 오죽주액 · 경면주사등으로 玉龍子 석지형 스님이 친필조성한 최고급 “佛”자 족자 무상보시



(압구정동 현대고 · 신사중 정문 맞은 편)

서울 소림정사 · 불교아카데미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532
TEL:3446-2158,2185 / 3443-9871~7 / 511-6210~5 (FAX:511-6214)